

염료중간체 가격급등 “중국장난?”

2002년부터 9월 가격인상 ... 중국의존도 높아 수입기업 골머리

염료중간체 시장이 중국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과 중국의 에너지 수급난 까지 겹쳐 중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반응성 염료의 주 원료인 Para Base는 2003년 kg당 1.75-1.80달러에서 2004년 3/4분기 3.0달러를 형성해 가격이 40% 가량 상승했고, H-Acid는 2004년 들어 20% 가량 상승했다.

분산염료는 Blue 56이 2003년 2.3-2.4달러에서 2004년 3달러로 인상된 후 3/4분기 들어 4.40달러까지 치솟아 45% 급등했다. 또 분산염료의 50%를 차지하는 Black제품이 30% 가량 인상돼 다른 컬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성염료를 비롯한 다른 품목들도 평균 약 10-20% 가격이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이고 염료중간체는 중국의존도가 높고 거의 전량을 수입해 투입하는 염료 및 섬유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염료 생산기업들이 중간체까지 자체 생산했으나 저가의 인디아산에 시장을 빼앗긴 이후 대부분 생산을 포기했으며, 2003년부터는 중국산이 중간체 시장을 장악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전력난으로 2-3일 가동 후 Shut Down하는 등 생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생산기업 몇곳이 도산하는 바람에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 여기에 폐수처리에 소요되는 환경부담비용까지 국내 염료 기업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염료 생산의 최대 호황기인 9-10월에 2002년부터 3년째 가격을 크게 인상하고 있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기업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10월에는 중국 최대의 명절인 국경절이 있어 2주 가량 휴무상태에서 축제를 즐기는 전통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격인상의 명분이나 국내에서는 섬유경기 불황이 지속돼 일부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인상이라는 것이 수입기업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력 수급난 해소시점 및 유가 인상폭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염료중간체 가격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9/08>